

時調 作品의 校勘 問題

— 《海東歌謠》와 〈漁父四時詞〉 —

심재완*

〈국문초록〉

文獻의 校勘으로 原文의 正確을 期하는 일은 學問研究의 重要한 基礎作業이다. 時調의 경우 長久한 口傳時代를 거친 후 筆寫에 依한 文字 定着을 보게 되었는데 錯誤없는 原作傳承에 配慮없이 轉寫를 거듭한 結果 現傳하는 歌集의 作品들은 原作의 變異現象을 피할 길이 없었다. 따라서 時調作品의 原貌를 찾는 데는 여러 時調集의 作品을 對校 校勘하여야 할 것이요 그 길은 拙著 校本 歷代時調全書에 依據하여야 할 것이다.

이 冊은 時調의 作品 뿐 아니라 作家, 曲目까지도 校勘이 가능하다. 孤山 尹善道의 作品을 例로 하여 그이 作品이 어느 冊에 어떻게 傳播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特히 漁父四時詞를 例로 孤山 遺稿와 海東歌謠의 對比에서 原作의 變改狀況을 校勘으로 살펴보았다. 孤山의 作品은 意外로 그 傳播가 좁았다.

孤山의 漁父四時詞가 原文의 添削 變改로 時調化되어 數種 時調集에 傳하는 中에는 特히 海東歌謠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漁父詞 40首中 38首가 海謠에 傳한다. 그러나 그 中 5首는 變改되고 있는데 그 中에는 原作으로 다루는 데에는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作品도 있다. 海謠의 編著者 尹善道 소개란에 「漁父歌 五十二首」라고 하여 漁父詞가 아닌 作品까지 合算하여 漁父歌로 다루며 海謠에 收錄하고 있어 疑問을 남기고 있다. 이 한가지 例로서 時調研究에서 校勘問題의 많은 課題가 있음을 밝혀 보았다. 이 方面의 연구가 未洽함을 느끼며 새로운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핵심어 : 문헌, 교감, 대교, 변이, 윤선도, 어부사시사, 역대시조전서

* 영남대 명예교수, 한국시조학회 고문

一. 序 言

우리 國文 古詩歌의 片貌가 한글 創製後 刊行된 《時用鄉樂譜》와 《樂章歌詞》 등에 傳承되고 있다. 그 國文詩의 寶典을 接할 때마다 그 序列에 時調集 한 冊 쯤 끼이지 못하였음을 아쉬워한다.

現存 最古 時調集인 1728年(英祖4) 刊行의 金天澤 編著 《靑丘永言》의 〈南坡後跋〉과 1763年 刊行의 金壽長 編著의 《海東歌謠》의 〈序〉에서 똑같이 실린 다음 文章을 통해 各冊의 刊行 動機와 目的 및 校勘方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은 漢文으로 기록된 文章과 詩律은 「刊行于世, 傳之永久, 歷千載而猶有未泯者.」임에 비해 우리말로 노래된 永言이나 歌謠는 「一時諷咏於口頭, 自然沈晦, 未免煙沒于後」함을 哀惜히 여겨 모든 階層의 作品을 「一一蒐輯, 正訛繕寫, 釐爲一卷」하여 이름하되 《靑丘永言》 或은 《海東歌謠》라 하고, 「使凡當世之好事者, 口誦心惟, 手披目覽, 以圖廣傳焉.」이라며 編輯 目的을 밝히고 있다. 이리하여 編輯한 그 冊들은 時調史 初有의 金子塔이요 不朽의 大業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後 수많은 時調集이 나오며 作品이 增補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다시 살펴보면 前述한 바 兩人的 「正訛繕寫」의 정신에 어긋난 歌集들이 많이 나와 原文의 混亂을 招來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正訛繕寫」를 주장한 《海謠》의 編者조차 그러한 過誤를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本論에서 指摘하는 동시에 原文校勘의 重要性을 밝혀보려 한다.

時調 研究에 앞서 基本資料의 校本과 校勘을 거쳐야 하겠다는 信念에서 筆者는 拙著 《校本歷代時調全書》를 出刊하여 모든 時調作品을 對校하여 校勘에 資하도록 하였다. 時調 研究에서 原典 校勘으로 基本資料를 바로잡고 시작해야 함을 이 《校本時調全書》를 通하여 實證해 보고자 한다.

二. 原文의 校勘

本論에 앞서 學問研究의 對象인 本文의 正確을 期하고 原形을 확인하기 위하여 本文과의 對校에서 文字의 脫誤·增添·刪削과 異同을 밝히고, 原文 復元까지 圖謀하는 일이 校勘이요 校讐이다. 이에 중국과 우리 나라의 校勘事業을 一瞥하고 時調作品 校勘의 實證에 들어가고자 한다.

1. 中國 典籍의 校勘

中國에서는 前漢의 成帝 河平 3년(B.C. 26)에 劉向이 秦始皇의 焚書로 없어진 冊을 모아 整理할 때 文字와 篇卷의 差異를 對校하여 바로 잡는데 篇目を 적고 책의 大要를 모아 《別錄》이라 하고, 그의 아들 劉歆이 父의 遺志에 따라 類別目錄인 《七略》을 내었다.

本文이 遺傳하는 동안 文字의 異同이 생기는데 그 현상은 板本이 出現하기 前에 더욱 甚하였다. 異本을 모아 校訂하는 宮中藏書를 校訂하던 人物中 蔡邕은 校正結果를 돌에 새겨 洛陽의 大學門外에 세워 政府公認의 標準을 삼고 石經이라 하였다.

이 校勘 活動은 六朝·隋·唐을 이어지며 編刊·校合으로 인해 宋의 板刻術의 발달로 傳本이 많아지고 本文의 異同 眞僞의 識別이 重視되었다. 清代에 이르러 考證學的 學風이 풍미하자 校讐學이 발달되어 本文의 眞僞 分揀에 더욱 힘썼고, 中華民國에 들어와 國學 研究熱과 海外 書誌學的 影響으로 계속 校勘學은 발달되었다. 校本은 校勘·校訂을 위하여 異本을 對校하는 일이다.

2. 우리 文籍의 校勘

7世紀 中葉(668) 高句麗가 敗亡하자 唐 李勣이 三國의 文籍을 모아

灰燼시키며 「不下中朝」라고 하였음은 우리 典籍의 優秀性을 짐작케 하는 말이다. 그 書冊의 內容과 더불어 體裁와 校勘이 잘된 冊임은 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그래서 後代에 高麗藏經과 《朝鮮王朝實錄》과 같은 最高의 印刷 文化財가 나오게 된 것이다.

高麗 高宗年間(1236-1251)에 나온 《高麗國新彫大藏經校正別錄》 30卷의 巨秩은 守其法師에 依하여 高麗初彫藏經을 비롯한 北宋本·契丹本外 諸經論錄의 入藏目錄까지 섭렵하여 本文의 誤脫·錯寫·異譯 등을 校正補修하고 經名·譯者名·卷數·函次의 異同까지 바로잡았다. 大藏經의 校勘으로 뛰어난 日本의 《大正新修大藏經》이나 中國의 《頻伽精舍板大藏經》도 다 같이 우리의 大藏經을 바탕으로 하였으니 이 冊의 校勘 事業은 永世에 빛날 것이다.

朝鮮時代에 들어와 高麗를 이어 典籍을 彫印하기 위하여 本文의 校勘事業을 專擔하는 校書館에 監校 監印을 두고 誤脫字 없는 印出을 보게 하였다. 그리고 鑄字所를 設置하여 多樣한 活字本을 出刊하였다. 「高麗史」는 梁誠之가, 「十八史略」은 安平大君이 勸校의 所任을 맡고, 誤字를 막기 위하여 罰則條項을 마련하였다. 王朝實錄에서 校勘事項을 살펴 보면 監校官을 明記하고 本文에 錯誤가 있으면 그 數에 따라 笞罪·減俸·罷職하는 規定까지 세웠다.

世宗때 國譯板인 月印釋譜 初印本에는 첫 章 書眉에 校正의 印朱가 찍히고 宣祖때 四書의 國譯 刊行에는 國譯의 音韻을 바로 잡기 위해 校正廳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官撰本은 이같이 嚴密한 課程을 거치며 本文의 校勘을 하기 때문에 誤植이 없는 印刊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民間 印刷物이나 寺刊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여 校勘 不足으로 誤記·訛傳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現代에 이루어진 本文의 校勘으로는 基本史料와 佛敎經典에서 볼 수 있다. 《三國遺事》의 校正을 위시하여 《三國史記》의 對校가 있었고,

實錄의 對比에서 異本 倒置·誤脫·添字 등을 밝히고, 佛國寺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과 海印寺大藏經 本文과의 對校 등이 校勘의 進展된 業績의 例를 남겼다고 하겠다.

우리 文籍은 書誌學의 發展과 더불어 校勘으로 原典의 正訛를 밝혀 나갈 길을 찾아가고 있는 바, 時調 研究에도 原典의 校勘 作業이 必須要件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時調의 校勘

時調는 그 歷史에 비해 歌集의 編輯이 너무 늦었다. 長期間 口傳으로 流布되다가 歌集에 收錄되었기에 原文의 誤訛로 因한 異文 類似歌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比較的 일찍 保存된 時調作品으로 龔巖 李賢輔의 〈歸田錄〉寫本(아들 梅巖 筆, 1549)이나 退溪 李滉의 陶山六曲 板本(1565) 같은 作品은 作家가 그 製作 經緯와 年代까지 밝힌 自筆이라 더없이 明確하고 신빙할 수 있는 資料이다. 그러나 餘他の 많은 작품들은 더 늦게 여러 歌集에 傳承되어 오면서도 變異가 거듭되어 原作의 모습이 바뀌었으니 이 現象은 오히려 當然한 일이라고 하겠다.

筆者는 時調를 研究하는 첫걸음에서부터 이 問題를 解決하고자 作品의 수집 對校를 通하여 原文을 구명하고자 《校本歷代時調全書》를 刊行하게 되었다. 本文과 曲目, 作家등의 對比로 一字一句의 異同까지 밝히는 作業을 하며 校本에 注力하였다. 이 속에서 時調 研究의 올바른 길이 열릴 수 있으리라 믿으며 期待도 하고 있다.

그럼 各 時調集의 作品을 《校本》에 依하여 字句·章節과 曲目, 作家別로 한 對比例를 들어 校本과 校勘의 役割을 밝혀보기로 하겠다.

字 句 : 春山에 → 靑山에, 千山에, 白雪이 → 雪月이, 白雲이
聾聾같이 마로리(陶山六曲 板本) → - - - - 하리라(靑六 源流 各本)

章 節 : 가노라 三角山아 다시보자 漢江水야 (瓶歌 223)
가노라 漢江水야 다시보자 終南山아 (古今 217)
가노라 漢江水야 다시보자 木覓山아 (根樂 247)

머귀여름 桐實桐實 보리뿌리 麥根麥根 (瓶歌 1059)
梧桐열매 - - - - - (靑六 737)
보리뿌리 麥根麥根 梧桐열매 桐實桐實 (源國 583)

作家 表示 : 黃眞-眞伊-明月-珍伊, 退溪-栗谷, 安玟英-朴孝寬-周翁-荊寶-安炯甫
金兌錫-金兌瑞, 朴啓賢-朴明賢, 李廷진-李廷盡-李廷鎮,
金光煜-松江-月山大君(栗里遺曲), 朴英-朴闇-松伊-松寅

三. 《海東歌謠》와 〈漁父四時詞〉校勘

便宜上 《孤山遺稿》는 《孤遺》, 《海東歌謠》는 《海謠》, 《瓶窩歌曲集》은 《瓶歌》로 《校本歷代時調全書》는 《時全》으로 略稱한다. 孤山 尹善道の 《孤山遺稿, 六雜》에 收錄된 國文 詩歌 作品은 〈山中新曲〉의 35首의 時調와 〈漁父四時詞〉 40篇이다. 이 75篇의 孤山 作品이 어느 歌集에 어떻게 傳播되고 있는가 하는 問題를 살펴보는 일은 孤山文學 研究의 一翼이 되리라 믿고 拙著 《時全》에 依하여 原文을 對校·校勘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資料 I, II)

〈漁父四時詞〉는 그 特性으로 보아 時調 與否의 論議가 있으나 《瓶歌》와 《海謠》에 時調 作品으로 收錄 傳來되고 있으며 筆者 또한 이에 同調하여 〈漁父四時詞〉를 時調로 다루어 《時全》에 收錄하였다.

《瓶歌》와 《海謠》에서는 《孤遺》의 〈漁父詞〉各首의 終章 初句를 新設 補完하고, 助興句(배써라, 至菊窓)를 除外하는 添削으로 完全한 時調形態로 改作하여 〈漁父四時詞〉 40首中 《瓶歌》에는 29首, 《海謠》에는 38首가 收錄되어 있다. 《海謠》의 누락된 2수는 〈春詞〉 三·四이다.(資料 I)

東風이 건듯부니 물결이 고이인다.
東湖를 바라보며 西湖로 가자스라
두어라 압되히 지나가고 뒷되히 나아온다. (〈春詞〉 三)

우는거시 벉구기가 프른거시 버들습가
漁村 두어집이 내속에 날낙들낙
아희야 濯纓歌의 興이 나니 고기도 이즐노라 (〈春詞〉 四)

위 두 作品中 〈春詞〉 三은 《瓶歌》에만 보이거나 〈春詞〉 四는 많은 歌集에서도 보인다.(자료 I) 《靑珍》에 無名氏作으로 보이면서 《海謠》에 누락된 까닭은 알 길이 없다.

本稿의 目的은 《孤遺》의 〈漁父四時詞〉와 《海謠》의 該作品을 對比 校勘하여 그 變異樣相을 밝히는 일이다. 38首中 5首(자료 I)의 作品中에서 誤訛·添削·轉倒 등으로 因한 原文의 變改 狀況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A. 終章 代置 (春詞 九, 時全 466)

初·中 : 낙시줄 거더노코 逢窓의 돌을보자 호미 밤들거나 子規소리 뭉게는다

終 : ××× 나른 興이 無窮하니 갈길홀 니젓맛다. (孤遺)

終 : 잇담암 魚躍龍門홀세 興이 좃차 나노미라 (海一, 海周)

孤遺의 終章에 海謠는 初句를 補完하고 異文을 代置함.

※ B. 中·終章 異文 代置 (夏詞 一, 時全 305)

- 初 : 구즌비 머저가고 시넬들이 뉘아온다
 中·終 : 낮대를 두러메니 기픈 興을 禁뫼홀되, ××× 煙江疊嶂은 님라서
 그러넨고 (孤遺)
 中·終 : 東湖로 돌아봄여 西湖로 가자슬아, 어줍어 압되히 물러가고 뒷되
 히 나아오느고야 (海一, 海周)
 孤遺의 中·終章을 異文으로 代置하고 終章 初句를 補完함.

※ C. 中·終章 異文 代置 (秋詞 三, 時全 1206)

- 初 : 白雲아 니러나고 나모긔티 흐느긴다
 中·終 : 밀물의 西湖 | 오 혈물의 東湖가자, 自顏紅蓼는 곳마다 景이로다
 (孤遺)
 中·終 : 밀물에 東湖가고 혈물에 西湖가자, 아희야 금을것어 설이고 돛글
 눅피돌아라 (海一, 海周)
 兩本 中章의 東湖 西湖의 位置가 바뀌고, 終章은 海謠에서 異文 代置, 初句
 補完함.

※ D. 初章 前句 異文 (秋詞 五, 時全 2269)

- 初 : 銀唇玉尺이 (孤遺)
 初 : 桶櫓에 썬노는곡이 (海一, 海周)
 孤遺, 海謠 兩本 前句 異文

※ E. 初章 異文, 中·終章 轉倒 (冬詞 八, 時全 1077) 中章 > 初章, 終章 > 中章

- 初·中 : ㄹㄱ의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식식흔고 머흔 구름 恨티마라 世上을
 ㄱ리온다
 終 : 波浪聲을 厭티마라 塵喧을 막느또다 (孤遺)

初·中 : 머흔 구름 恨치말아 世上을 곱이온다 波浪聲 厭치말아 塵喧을 막
 느고야

終 : 두어라 막히고 곱인줄을 나는 조화 흐노라 (海一, 海周)
 孤遺의 中·終章이 海謠의 初·中으로 바뀌고 孤遺의 初章 削除되고,
 海謠의 終章은 異文으로 補完함. 兩冊 內容은 類似하나 많이 다른 作品이다.

四. 結 言

近年들어 우리 時調 文學의 最高峰인 孤山의 研究가 활발하여 《孤山文學》誌가 나오고 孤山에 대한 著書와 論文이 續出함은 慶賀할 일이다. 〈漁父四時詞〉에 대한 論文만도 多數가 있어 그 多樣한 研究의 成果를 보여주고 있다.

筆者는 拙著 《時全》을 通하여 孤山의 時調가 歌集에 얼마나 어떻게 傳播되고 있었던가? 孤山時調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를 살펴 보면서 孤山 時調가 바르게 그리고 널리 퍼져 있기를 期待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孤山의 時調는 《瓶歌》와 《海謠》에 局限하여 收錄되었을 뿐 여타 歌集에 실린 作品은 6수뿐(漁父詞에 5수, 夏雨謠 1수)이요 作家表示는 尹善道 外에 鄭澈(東歌選, 無名氏, 作者未詳으로 되어 있었다. 《靑珍》에는 孤山 作品이 無名氏作으로 1수가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孤山은 그 名聲에 비해 그의 時調는 廣布되지 못했던 것이다.(자료 I)

《海謠》에 傳하는 〈漁父四時詞〉 38首中에도 5首가 原文과 달리 改造 變異된 異文 혹은 類似歌로 취급되었다. 스스로 「正訛繕寫」를 다짐하고 이런 作業을 남긴 것은 뜻밖의 일이다.

拙稿에서 《海謠》에 傳承된 〈漁父四時詞〉의 原文 變異樣相을 考察함은 原典 校勘의 重要性을 主張하고자 함에서이다. 우리 古典에 쏟은 校勘의 정성을 우리 時調 研究에도 反映하여 原文 檢討에 配慮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Transformed Sijo Texts

Haedonggayo and 'Eobusasisa'

Shim Jae-Wan

It is extremely crucial in academic researches to clarify exact spellings and original contents of the works under analysis. In the case of Sijo, the works in different collections of poems with the same title prove to have been transformed in its spellings and expressions through the long period. Therefore it has been a very important step which should be taken prior to a research of Sijo that spellings and expressions of those works be compared and checked. In this point of view, I believe the book titled *A Full Collection of Sijo, YokdaeSijojunseo*, written by me can be of great help to identify the expressions and contents. Moreover this book enables us to check authors and melodies of the works.

This is a study on the aspects and phases of transformation of an original work by examining 'Eobusasisa'. The findings are the following: first of all, the number of collections including 'Eobusasisa' is unexpectedly small; secondly, how the original work was transformed and modified in various collections.

A representative collection including 'Eobusasisa' as a transformed style into Sijo is *Haedonggayo*, where 38 poems out of 40 of 'Eobusasisa' are collected. All the modifications and changes have been checked in this study.

To sum up, it is very important to compare the variations of a Sijo work with each other. It enables us to check up and to identify the writers, spellings, expressions, and melodies.

Keywords : Spellings, Expressions, Melodies, Eobusasisa, Original contents.

資料 I 《孤山遺稿》와 《海東歌謠》 - 〈漁父四時詞〉 -

○: 작품수록 ×: 작품 미수록 其他의 숫자: 時全책 번호

漁父四時詞 歌番	時全 歌番	初句	瓶歌 1	海一 3	海周 4	其他
春詞 1	1876	압개예	○	○	○	
2	491	날이 덥도다	○	○	○	
3	903	東風이	○	×	×	
4	2176	우눈거시	○	其他(異2,9,異1,6,8,10,16,21,三家樂府,異24,25,26,27,28,29,30,31,33,33,34,35,36,異15,異13)		
5	182	고은별티	○	○	○	
6	1567	夕陽이	○	○	○	9
7	1167	芳草를	○	○	○	
8	3021	醉호야	○	○	○	
9 ^{*A}	466	낙시줄	○	○ (167)	○ (172)	
10	593	來日이	○	○	○	
夏詞 1	305	구즌비	○	○ (169)	○ (174)	
2	2022	년넝희	○	○	○	
3	952	마람넝희	○	○	○	
4 ^{*B}	1078	믄겘이	○	○	○	
5	971	萬柳綠陰	○	○	○	
6	418	긴날이	○	○	○	
7	1568	夕陽이	○	○	○	
8	1035	몰래우희	×	○	○	
9	1157	밤스이	×	○	○	
10	2132	蝸室을	○	○	○	

漁父四時詞 歌番	時全 歌番	初句	瓶歌 1	海一 3	海周 4	其他
秋詞 1	1090	物外예	○	○	○	
2	1694	水國의	○	○	○	
3 ^{*C}	1206	白雲이	○	○	○	7,7,8,16,17,24, 25,26,27,28,29, 30,31,33,34,35, 36,異 歌鑑
4	399	그러기	○	○	○	
5 ^{*D}	2269	銀唇玉尺이	○	○	○	
6	627	넙브람이	×	○	○	
7	3333	현이슬	○	○	○	
8	147	乾坤이	○	○	○	
9	2129	웃우회	○	○	○	
10	1683	松間石室의	○	○	○	6,8,10,16
冬詞 1	292	구름	×	○	○	
2	2625	주대	×	○	○	
3	2035	여튼갠	×	○	○	
4	64	간밤의	○	○	○	
5	366	그물낙시	×	○	○	
6	2479	자라가는	×	○	○	
7	759	丹崖翠壁이	○	○	○	15
8 ^{*E}	1077	물그의	×	○ ∞ (170)	○ ∞ (175)	
9	2740	滄洲吾道를	×	○	○	
10	1952	어와	×	○	○	

資料Ⅱ 《孤山遺稿》와 《海東歌謠》

孤遺	時全 歌番	初句	瓶歌 1	海一 3	海周 4	其他
山中新曲 漫興	1433	산슈간	×	○	○	
	1261	보리밥	×	○	○	
	2489	잔들고	○	×	×	
	666	누구셔	○	×	×	
	580	내성이	○	○	○	
	101	江山이	○	○	○	
	2228	月出山이	○	×	×	
朝霧謠 夏雨謠 飢歲嘆	1361	*비오논디	○	○ (177, 474)	○ (182, 302)	2,3,4,6,7,8,9,10,11, 16,17,19,24,25,29, 30,31,33,38,39
	3288	환자타	×	○	○	
五 友 歌	572	내 버디	○	×	×	
	289	구름 빗치	○	×	×	
	207	고즌	○	×	×	
	850	더우면	○	×	×	
	442	나모도	○	○	○	
	2470	자근거시	○	×	×	
春曉吟	1997	엄동이	○	×	×	
古琴詠	1133	브렸던	○	×	×	
罷宴曲	2666	즐기기도	○	×	×	
	1716	술도	×	○	○	

孤遺	時全 歌番	初句	瓶歌 1	海一 3	海周 4	其他
夢 天 謠 三 章	1507	상해런가	×	○	○	
	3109	뜻즘의	○	○	○	
	3138	하늘히	×	○	○	
遺 懷 謠 五 篇	1752	슬프나	○	○	○	
	592	내일	○	○	○	
	2970	楸城鎮	○	○	○	
	1044	뫼훈	○	×	×	
	1916	어비이	○	×	×	
雨後謠	304	구즌비	○	×	×	

*1. 비오논디 들희가라 사립닷고 쇼머겨라.
 마히 미양이라 잠기연장 다스려라.
 쉬다가 개는 날 보아 스래긴 밧 가라라.
 (〈山中新曲〉 右〈夏雨謠〉 尹善道, 《瓶歌》)

*2. 《孤遺》에서 《海謠》가 〈山中新曲〉 外 35首에서 取錄한 14首와 〈漁父四時詞〉 40수에서 取錄한 38首 計 52首는 《海謠》의 尹善道 아래 「宇約而 號 孤山 仁祖朝 叅議 漁父歌 五十二章」을 의미하는 듯.